

반딧불은 숲을 아름답게 하고
KOPEC의 기술은 한국의 밤을 아름답게 합니다



별이 내리는 동화같은 한강의 야경. 분위기 있는 당신의 테이트 뒤에도 KOPEC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당신 옆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 KOPEC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KOPEC의 기술은 우리 생활 속 에너지 관련 설비 전반에 걸쳐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설계 -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KOPEC,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당신 옆에 KOPEC이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영광원자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말산 - 말길 설비

 **KOPEC**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opec.co.kr

통권 300호 2007

KOPEC family

한 국 전 력 기 술

01



January

새 달력 걸고 나니

내 얼굴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

한해의 길 조심스레 열고 반듯이 걸어간다.

Contents

2007 KOPEC FAMILY

- 4 K-Message | 긍정적 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 8 KOPEC NEWS | 2007년도 시무식 거행 외
- 14 테마기획 - 세계속으로 | 영화 007골드아이의 무대 베르너오버란트
- 18 생활과 과학 |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 20 웰빙 KOPEC | 말의 분위기를 바꾸자
- 22 KOPEC 마인드 | "귀하의 스트레스 관리는 원활하십니까?"
- 24 도전 IT전문가 | 나의 디지털카메라 역사
- 26 Teamwork | 신고리 3,4호기 원자력계통설계사업
- 30 책 읽어주는 남자 |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 31 KOPEC 문예 | 제 17회 한기문에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 36 경제를 보는 눈 | 세대간 본격적인 빈부격차, 머지 않았다.
- 38 건강 100세 |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프십니까?
- 40 문화의 산책 |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 슬로푸드
- 42 Radar | 2020년까지 발전소 39기 짓는다 외
- 44 InsideOutside | 서울동정 외
- 46 퀴즈한마당 | 틀린그림 찾기 외
- 47 인사 | 사보가 誌齡 300호를 맞았습니다



Cover Story | 촬영 : 홍보실 김종학 사진기자

플랜트사업개발처 이배수 처장은 지난해 11월 8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설계 국산화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긍정적 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갑시다



친애하는 KOPEC 직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06년은 우리회사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직원 모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미래에 대비한 노력도 충실히 이행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의 성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경쟁력우위 확보측면에서 차세대노형인 신고리 3,4호기를 계약하고, 방사성폐기물사업, 나이지리아 이팜 복합발전소설계사업 수주 뿐 아니라 백텔, S&W, BMI 등 선진외국회사에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상당한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술도도와 계획수립과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경쟁력제고에 진전이 있었으며, 저온탈질촉매 원천기술 등록 등 환경 신기술개발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사관계측면에서는 최근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제도의 도입은 정부, 한전 등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과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양보와 노력의 결과로 일구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도 참사랑봉사단 활동, 중소기업지원 등의 조직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사회공헌기업대상,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성과경진대회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긍정적 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국내 전력시장은 신규발전사업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고유가, 자원경쟁 등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기술을 세계수준의 기술로 발전시켜, 세계유수기업과 공동으로,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내재화 시켜나가기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회사는 정부의 혁신수준평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혁신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BSC제도, 워크아웃제도 등 경영혁신관련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당장은 혼란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창의적인 KOPEC의 기업문화입니다.
 직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문화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 생산성향상노력 등으로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향후 KOPEC이 세계최고의 기술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직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일
 사장 임성춘

김은규 상임감사

직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선남선녀들을 들뜨게 했던 '쌍춘년' 계미년을 뒤로하고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띠'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 교수신문은 한국사회를 반영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 (密雲不雨 : 구름은 많지만 비는 오지 않는 상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은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어려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지난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고객만족 및 사회공헌 활동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특히 생산성 협약임금제 도입으로 노사안정 및 회사발전을 위한 획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경영활동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분발하여 최상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황금돼지 해를 훌륭하게 장식하길 바라며, 올해 연말에는 한국사회도 우울한 내용이 아니라 '만사형통' (萬事亨通 : 모든 일이 잘 풀리다)이나 '만재이귀' (滿載而歸 :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다)와 같은 희망적인 표현들이 한 해를 대변하는 말로 선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저는 KOPEC가족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칙주의'를 화두로 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KOPEC가족으로서 원칙을 지켜오는 데 도움을 준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래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KOPEC이 그 든든한 밑거름으로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종성 경영지원본부장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30년을 펼쳐갈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은 우리 KOPEC가족 모두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기대하면서 기획관리본부의 역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성과를 회사 경쟁력의 근간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회사는 2년 연속무쟁의, 무분규 노사관계 정착, 혁신수준 4단계 진입 성공,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도약 등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과들을 하나씩 다듬어서 회사 경쟁력의 근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회사 경쟁력의 요체인 기술혁신은 물론 제도, 사업, 의식 등 각 분야의 시스템을 혁신주도형으로 변화시켜 비능률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일류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실있는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영상황도 우리 직원 모두에게 비상한 각오와 다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획관리본부는 전력산업 및 국내외 플랜트산업의 시장 환경변화 등 예상되는 모든 경영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요인별 대비책을 신속하게 수립함으로써 경영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으로서 생존의 바탕인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도 기존의 관리체계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엔지니어링 회사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 급여, 직급 제도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들 현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제도마련의 초석은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인 원자력사업단장

KOPEC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원자력사업단이 나름대로의 큰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신규 원전설계사업과 관련하여 몇 년 동안 예비사업만 수행하며 결실을 맺지 못했던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계약 및 방사성폐기물시설 설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가동원전의 경우에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지원사업에 힘입어 신규사업 계약액이 약 700억에 달하는 등 새로운 사업개발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미국 WEC사와 NuStart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고, Becht 사에도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비전을 갖고 묵묵히 일해 온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참여 활동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어 봉사 및 현장이공히 매 분기마다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회사의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도 우리에게 많은 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시작되고 신고리 1,2/신월성 1,2의 건설이 피치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사업도 건설허가 취득은 물론 빠른 공정준수를 위하여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가동원전사업에 있어서는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지원을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고객을 밀집 지원하게 될 것이고,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WEC/S&W의 AP100 중국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며 협력기관인 우리회사의 역할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본연의 엔지니어링 업무 이외에도 불우한 주변 이웃과도 더 가까이 나누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철수 플랜트사업단장

지난해 우리 사업단은 신규사업개발의 확대와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신기술 개발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선진기술국인 미국 발전시장에 인력파견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소 설계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화력발전소 사업수주에 의한 안정적 물량 확보와 해외사업개발 확대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외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및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단의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사업개발 확대를 위하여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망지역 및 경험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아래,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및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과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O&M 사업의 적극수주 신규창출, 환경 및 FM/CM 사업개발,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내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돌파구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사업과 시장 환경은 그 변화의 흐름이 날로 빨라지고 있으며, 기업은 물론 개인이나 국가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지면 힘없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전력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도전과 창조 의 정신으로 가득한 일터를 만들어 명실상부하게 우리 비전인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기술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2007년 뜻있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동수 원자설계개발단장

2006년에는 지나간 20여년 동안 잠잠하였던 국제 원전시장에 변화의 새 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바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매입하였고, 미쓰비시는 볼란서의 AREVA와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였으며, 히다차는 미국의 GE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50기 이상의 원전을 자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제 원전시장 진출에 몸을 사리었던 일본이 드디어 세계 원전시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 정해년은 이러한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Nuclear Island (NI)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원자설계개발단도 2007년에는 국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전문기술 영역의 확장에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의 건설주주 업무에 더하여 후행 업무에서 계통설계자의 요건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기기의 성능은 적합한지 등 확인과정을 더욱 더 강화하여 NI 공급자 역할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안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제 수행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기술자립이란, 도입한 기술의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 원전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관리능력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서도, 지금 세대에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인 기술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 비합리적이며, 이미 도입한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원전시장에서도 태워줄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시작점이 되도록 2007년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연구소는 핵심기술 및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체제정비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올해에도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은 동일하지만 수행방법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립된 종합기술고도화 계획은 회사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과제의 신중한 선택과 심도있는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새로이 착수한 표준문서의 Know-why 배경기술에 대한 자료수집은 바로 회사의 핵심기술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2 년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값을 매길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적자산이 될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Know-why에 대한 기술이 앞서야 진정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술경쟁은 움직이는 화살과 같이 끊임없는 노력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허영석 전력기술개발연구소장



2007년도 시무식 거행

2007년도 시무식 거행

2007년도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임성춘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긍정적 변화에서 나아가 올해는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내재화 시켜나가는 한편 활기차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창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7차 이사회 및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06년도 제7차 이사회 및 제4차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2월 22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생산성 협약 임금제 시행(안), 임원 직무청탁계약 운영규정 제정(안),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급여규정 개정(안), 직원연봉규정 개정(안), 복지후생규정 개정(안), 별정직규정 개정(안), 취업규칙 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200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06년



제7차 이사회 및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고 임원연봉규정 개정(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원연봉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중국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 부원장 방문

중국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 Zheng Mingguan 부원장이 지난 12월 18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한기인 원자력사업 단장과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은 중국 독자노형인 CNP1000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설계전문회사이다. 우리회사 일반현황, 3D 설계기술의 원전설계 적용현황 등을 소개 받은 Zheng 부원장은 우리회사의 30여년에 걸친 원전 설계 경험과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양 기관의 원자력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성과경진대회 수상

지난 12월 6일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중국 상해핵공정연구설계원 부원장 방문

열린 '중소기업지원 활용부서 발표회 및 전력그룹사 지원성과경진대회'에 참가하여, 4개 그룹사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지원활동 관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전력그룹사간의 실질적인 지원성과 공유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우리회사는 전력그룹사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인승 팀장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의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하에 우리회사의 중소기업지원추진배경 및 전략, 지원협력모델, 기술지원 사례 등을 발표함으로써 발전소 설계업무를 주로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의 특성에 부합되는 지원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인천공항 2단계 시운전기술지원 용역 계약 체결

지난 12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2단계 시운전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벡텔과 함께 추진한 정부고속철도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성과경진대회 수상

건설사업 PM용역과 미국의 대형 PM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한 인천국제공항건설(1단계)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한 데 이어 이번 용역을 수주하여 우리회사의 사업관리수행능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향후 유사용역사업을 주도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GC 골프장 준공

문경GC 골프장 준공식이 지난 12월 11일 문경GC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임성춘 사장이 참석하였다. 문경GC 골프장은 대중(퍼블릭) 18홀로서 2004년 9월 착공하여 2년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우리회사는 책임 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날 (주)문경레저타운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문경GC 골프장 준공으로 건설사업관리 경험을 축적하여 건설사업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준공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50MW급 발전



문경GC 골프장 준공

소 준공식이 지난 12월 1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임성춘 사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대규 부장은 준공 유공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우리회사는 1999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지원화 사업 타당성조사(KOPEC, 금호엔지니어링, Black & Veatch International, SCS Engineers, Inc.) 주간사로 참여하여 이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시행자인 에코에너지가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회사 최초로 민간사업자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소 설계 및 건설공사(구매, 시공, 시운전) 부문을 종합계약자로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우리회사는 소형발전소 건설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또한 송전선로 건설 터키공사 실적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관련 건설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가스 발전소 준공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6년도 한기 경영혁신 경진대회가 지난 12월 19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워크아웃기법을 통해 현행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낸 정보화추진처의 '공유시스템 보강방안 수립'이 대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27일 출판작 공모를 시작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26개 부서의 자체 평가를 거친 5개 부문(경영관리, 사업, 기술, 고객만족·윤리경영, 중소기업지원부문) 총 49개의 혁신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예선 및 본선 평가, 경영진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및 부문별 최우수상 등 총 6개 사례를 시상하였다. 이날 임성춘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문제의식과 창의성을 갖고 도전하고 해결해 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혁신 Best Practice의 발굴 확산을 통해 혁신 성과 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혁신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의 수상 및 본선 출판작은 혁신사례집으로 발간되어 대내·

외에 홍보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한 혁신 체질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제어봉 구동시스템의 고전압 방지 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지난 11월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제어봉 구동시스템의 권선이 고전압으로 손상되어 제어봉이 불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원자력발전소 제어봉 구동시스템의 고전압 방지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제0650294호, 발명자: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계측제어처 김용훈, 홍형표, 박철락, 신해곤, 구준모, 한희환)에 대해 국내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특허에서는 제어봉제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상부 집계권선용 SCR 제어신호를 감시하여 3상 SCR을 모두 고전압으로 점호시키는 고장이 발견되면 고장 신호를 발생하고, 독립된 대체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SCR의 정상적인 제어로 제어봉을 유지케 함으로써 상부 집계권선의 고전압 노출 및 이로 인한 제어봉 낙하를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특허 기술을 실용화하여 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제어봉제어시스템의 단일고장에 의한 제어봉 구동시스템의 상부 집계권선 손상 및 이로 인한 제어봉 불시낙하를 예방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원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 및 진동 저감형 캐비테이팅 벤츄리 국내특허 취득

지난 9월 26일 (주)하이트롤, (주)유비콘 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계통에서 유량제한장치로 사용되는 캐비테이팅 벤츄리의 소음·진동저감 기술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하였다. 이번에 획득한 "복수 개의 측지공명기를 구비하는 캐비테이팅 벤츄리" (등록번호: 제0630818호) 특허기술은 캐비테이팅 벤츄리가 임계유동조건에서 운전될 때 주변 배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진동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울진 5,6호기, 영광 5호기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설치한 바 있고, 추후 영광 6호기, 울진 3,4



호기 및 신규원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의 특징은 계통유체가 벤츄리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인한 입력파가 유발하는 후단 배관계의 고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측지공명기(Side Branch Resonator)를 벤츄리 몸체에 설치하여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배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 특허 취득

압력용기용 쿨칭/템퍼링 진공처리 단조 저합금강의 용접과정 동안 미변태 열영향부의 탄화물 조대화 현상을 억제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국부 열제거원 용접장치 및 그 용접방법'에 대해 미국특허(등록번호: US 7,099,447 B2) 및 중국특허(등록번호: CN1278810C)를 지난 8월 15일과 10월 11일 각각 취득하였다. 이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번호: 제0514311호, 발명자: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재료기술연구그룹 진태은, 김중성)는 2005년 9월 5일 취득한 바 있다.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심사 수검 완료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주)BSI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심사를 받았다. 주요 심사 대상은 기획처, 행정처, 기술관리처, 정보화추진처, 기술처 및 신월성1&2(원자로설계개발단 포함), 당진 7&8, 하동 7&8, 영주 파머스마켓 건설사업분야 및 품질보증처의 품질보증업무 분야이다. 심사 결과 (주)BSI인증원은 우리 회사가 연간 내부감사계획에 따라 전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감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 확산으로 인해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종합평가를 하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갱신 발행하였다. 우리 회사는 1996년에 국제적 품질시스템 기준인 ISO 9001 인증서를 최초 취득한 이후 사후관리심사를 통하여 품질시스템 이행 및 유지관리를 평가 받아오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으로

국제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품질보증시스템을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갱신심사는 한국인정원(KAB, Korea Accreditation Board) 인증제도 규정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이 매 3년으로 지난해 우리 회사의 인증서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영흥화력 3호기 수압시험 기념행사 참석

우리 회사가 설계하는 영흥화력 3호기 보일러 수압시험 기념행사가 지난 12월 11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열려 우리 회사에서 플랜트사업단장이 참석하였다. 영흥화력 3호기는 이날 수압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후속공정인 최초점화 등 종합시운전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일러 수압시험은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보일러 튜브와 주증기 배관설치가 완료된 후 각 용접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정검사 항목이다. 이번 시험 압력은 최종 과열기 출구 설계압력의 1.5배인 410kg/cm²이 적용되었다. 영흥화력



염광 고외 자매결연 체결

3호기는 현재 공정 73%로서 오는 6월 계 통병입 10월 통기 후 2008년 6월 상업 운전 예정이다.

염광고외 자매결연 체결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과 산학협력 우수실업고간 1社-1高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염광여자정보교육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염광고에 교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실무능력 향상 지원,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물적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산업자원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지난 12월 22일 우리회사 4층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57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매달 순회로 주관한다. 산업자원부 혁신기획팀장과 산하 공공기관 혁신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리회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혁신사



산업자원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례를 공유하고 우리회사 혁신활동에 대한 설명회순으로 진행되었다.

BSC 성과관리체계 워크샵 실시

BSC 성과관리체계 워크샵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체계 설계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코오롱 인재개발원 및 원자료설계개발단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전사 전략과제 및 전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공유, 단/본부별 KPI 도출, 지표정의서 작성, 평가운영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BSC 성과관리체계 설계를 통하여 전략 실행력 제고, 조직단위별 목표의 명확성, 성과평가의 객관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확정된 성과관리체계는 2007년에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교양강연회 개최

노사관계 변화 인식을 위한 교양강연회가 경영간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30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노사관계 교양강연회 개최

날에는 임중호 노무사(현 B&K노무법인 부대표)가 산별노조의 개념과 노동계의 변화조류에 따른 상황인식 및 대처방안, 합리적인 노사선진문화 창달을 위한 노사협력 사항에 대해 강연하였다.

공정거래 강연회 개최

공정거래 강연회가 지난 12월 8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계약관련 업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공공사업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 및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감시팀 남동일 사무관이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법위반 사례를 주제로 2시간동안 강연하였다.

'혁신시대의 품질경영' 강연 실시

품질보증처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품질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품질경영 및 품질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지난 12월 11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신완선 교수를 초청하여 '혁신시대의 품질경영'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선도 기업의 혁신전략, 혁신 내용, 혁신 리더의 역할, 말콤볼드리지상 경영품질의 핵심요소와 품질혁신의 실천 전략 등으로 역량 있는 인재 육성과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고객만족 향상은 물론, 향후 품질혁신 실천 전략 및 핵심 개선 분야의 도출 등 품질경영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 한연기공동협의회 개최

지난 12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2006 한연기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연구로 분야 및 재료기술분야 실무협의회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회사는 신형 원자로개발 기본 방향 및 중대사고 수소 상세분석 코드 개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GEN IV 추진현황, KNICS 개발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심화과정교육 실시

현장 혁신 중심의 혁신학습을 통한 현



2006 한연기공동협의회 개최

장 중심의 자율 혁신 체질화를 달성하고 혁신 수행체계 확립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14일과 15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혁신심화과정 교육이 있었다. 이 교육에는 Two-In, One-Out 과제책임자 및 한기아이디어뱅크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변화, 혁신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확립 및 일하는 방식의 점검과 개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인사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원자력사업단에서는 2006년도 중점추진사항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9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외부인사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에는 남궁중규 전 원자력사업단장이 '한기위상과 후배직원들께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대외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기의 위상과 위치, 그리고 퇴직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등에 대해 선배 입장에서 조언하였다. 또한 실제 퇴직후의 실생활에 대해 살아있는 듯한 인생경험을 얘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와 아울러 직



외부인사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원들에게 변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플랜트사업단 기술분야별 브레인스토밍 실시

플랜트사업단은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별관 및 본관 회의실에서 사업단 8개 기술분야별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였다. 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총괄EGS 주관으로 기술분야별 개별 실시한 이번 브레인스토밍에는 사업단 직원 90여명이 참가하여, '조직 활성화 및 근무의욕 고취', '고객만족 향상방안',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조직 활성화방안' 등 분야별 8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고 사업단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안사항부터 사업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플랜트사업단은 2007년에도 회사와 사업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업단 운영의 효율화에 힘을 계획이다.

영화 007골든아이의 무대

베르너오버란트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차창 밖으로 펼쳐진 베르너오버란트의 겨울 풍경은 자연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하다.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멋진 자태를 자랑하는 고성도 그렇고 능선을 따라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아담한 마을 또한 그렇다. 다섯 나라에 걸쳐 있는 알프스 지역에는 수많은 명소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멋진 고장이 즐비하나 스위스 알프스만큼 매력적인 곳도 드물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테마가 있는 여행' 첫번째로 영화 007시리즈 가운데 최고 인기를 모았던 '007골든아이'의 무대이자 우리나라 배낭여행객들이 첫손에 꼽는 여행지인 스위스 베르너오버란트(Berner Oberland)를 찾아가 본다.

베르너오버란트 지역은 최대 도시인 '룬'을 비롯하여 슈피츠, 브린츠, 마이링겐 등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한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매력적인 장소를 한곳만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인터라켄을 거점으로 하는 융프라우 지역을 선택한다.

알프스 허리에 해당하는 베르너오버란트의 거점도시 가운데 한곳인 인터라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호들의 휴양지로 유명했다. 인터라켄은 라틴어로 '호수와 호수 사이'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동쪽으로는 브리엔츠 호수가, 서쪽으로는 툰 호수가 둘러 있다.

인터라켄에서 베르너오버란트 최고봉 융프라우봉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지만 여행객이

- 01 실트호른 전망대에서 바라본 베르너오버란트 풍경으로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풍광을 접할 수 있다.
- 02 베르너오버란트 지역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융프라우봉.
- 03 영화 007골든아이에서 제임스본드가 열연을 펼쳤던 실트호른과 뮌헨 사이를 운행하는 케이블카.
- 04 실트호른 전망대에서 바라본 융프라우봉의 저녁별 풍경.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등산열차를 이용하여 중간 기착지인 클라이네 사이데크까지 이동 후 열차를 바꿔 타고 융프라우요흐(Jung Fraujoch)까지 오르는 방법뿐이다. 인터라켄에서 출발한 등산열차에서 바라본 베르너오버란트 풍광은 알프스의 역사를 보는 듯하다. 긴 겨울잠으로 빠져든 위풍당당한 준봉들, 거대한 산자락에 매달려 있는 소박한 오두막집 살레, 화려하지는 않지만 묘한 매력을 풍기는 아담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베르너오버란트에서 접하게 되는 풍광들은 그 자체가 한 장의 엽서요 그림이다. 이런 풍광을 벗삼아 얼마쯤 이동하면 수많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거 북벽이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클라이네 사이데크에 이른다.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이 모여 있는 클라이네 사이데크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융프라우봉을 오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설원을 질주하는 스키어, 추위도 잊고 독서삼매경에 푹 빠져 있는 관광객과 주민까지.

이느 방향에서 오르든지 반드시 하차하여 다른 등산열차로 바꿔 타야하는 클라이네 사이데크에서 1시간 남짓 더 오르자 몸속으로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등산열차를 내리자 유럽의 지붕이란 의미의 'Top of Europe'이라는 글귀가 시선에 들어온다. 바로 해발 3454m지점에 세워진 기차역이 자리한 융프라우요흐다.

역과 쉼터를 연결하는 터널을 지나자 은세 계인지 별세 계인지 지금까지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몸과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 카페와 레스토랑

- 05 실트호른 정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준비하고 있다.
- 06 베르너오버란트 최고 명소로 알려진 융프라우 지역에서 스키를 즐기는 이들.
- 07 베르너오버란트 지역의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이들이 나온 부부.
- 08 베르너오버란트의 알프스를 찾은 이들을 위한 휴게소.



- 09 설원을 달리는 등산열차로 인터라켄과 클라이네 사이데크를 경유하여 융프라우 요흐까지 운행된다.
- 10 툰 호수에 자리한 슈피츠 마을과 성으로 유람선을 이용하여 툰과 인터라켄으로 갈 수 있다.
- 11 인터라켄과 브린츠 사이를 운행하는 유람선으로 유레일패스 소지자는 누구나 무료로 승선이 가능하다.
- 12 웅장한 바위와 산 사이에 자리한 베르너 오버란트 지역 라우터브루넨 마을.
- 13 뮌렌 주민들이 치즈를 만들려고 불을 지피고 있다.
- 14 치즈를 만드는 뮌렌의 한 주민.

그리고 우체국과 기념품센터가 모여 있는 쉼터는 알프스 빙하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알레치 빙하군을 비롯하여 인근에 펼쳐진 베르너오버란트 봉우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레스토랑이 위치한 융프라우요흐에서 얼음 티널인 얼음궁전을 지나면 또다른 전망대인 플라토 전망대가 나온다. 플라토 전망대는 스텝크스 전망대에 비해 전망은 조금 떨어지나 직접 설원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스키와 등산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여 간혹 융프라우봉의 정상에 향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전문 산악인들도 볼 수 있다. 플라토 전망대 지역은 영화 '007골든아이'에서 주인공 제5대 제임스 본드(피어스 브로스넬)가 스키를 타고 위기에서 벗어났던 장면을 촬영한 곳이다. 실제 영화가 촬영되었던 알레치 빙하군과 융프라우봉 사이로 걸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키를 이용하여 접근하거나 멀리서 영화의 무대를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

융프라우요흐 지역이 웅장한 융프라우를 아래서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라우터브루넨 계곡 위에 터를 잡고 있는 쉴트호른(Schilthorn)은 융프라우, 아이거, 뮌히 등 베르너오버란트를 대표하는 장엄한 봉우리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360도 회전 파노라마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쉴트호른은 영화 007 골든아이의 메인 촬영 장소로 영화에 등장했던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사무실과 전망대, 레스토랑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더욱이 비르크 전망대에서 파노라마 전망대를 연결하는 커다란 케이블카와 거대한 설원은 주인공이 스키를 타고 쫓기는 장면을 촬영했던 곳으로 스키에 자신이 있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스키를 즐길 수도 있다.



09



11

쉴트호른 역시 자랑거리가 많다. 그 중 으뜸은 이곳에서 바라본 융프라우와 아이거, 뮌히, 브라이트호른과 블렌리스 알프스로 이어지는 풍광이다. 어느 때 바라보아도 웅장한 알프스이나 저녁놀이 비친 알프스의 준봉을 보고 있노라면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의 위대한 솜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다.

쉴트호른을 이야기할 때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쉴트호른과 라우터브루넨 계곡 사이에 자리한 '뮌렌'(Murren)이란 그림처럼 아름다운 농촌마을이다. 스위스 농촌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진 뮌렌은 007골든아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극한 평범한 고장이었다. 당시 뮌렌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소를 기르면서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마을 위쪽에 자리한 쉴트호른이 007시리즈를 촬영한 장소로 알려지면 서부터 일약 유명 관광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전망이 뛰어난 언덕과 아찔할 정도로 스릴이 느껴지는 절벽마다 호텔과 레스토랑이 자리했다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스위스 전통 농촌을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다. 뮌렌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어느 집이나 생활공간 부근에 소들의 보금자리인 우사와 긴 겨울 동안 소에게 먹일 건초를 비롯하여 시골마을의 대표적인 연료인 장작이 가득 자리잡은 '진정한 농촌'이란 점이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와 달리 순박하면서도 친절한 농촌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명소가 자리한 스위스는 어느 곳을 방문해도 흥미로운 볼거리가 즐비하다. 하지만 베르너오버란트 지역만큼 드라마틱한 고장도 드물다. 융프라우봉을 중심으로 쉴트호른과 뮌히, 아이거 봉이 어우러진 베르너오버란트는 스위스 알프스의 진정한 멋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10



13



14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김정훈 / 과학동아 기자

겨울이 되니 정전기가 가승이다. 자동차에 키를 꽂을 때마다 불꽃이 튀고, 스웨터를 벗으면 찌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애인의 뺨를 쓰다듬을 때 정전기가 튀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이 짜증나는 정전기는 왜 생기는 걸까? 정전기의 정체를 알면 이를 막을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정전기는 번개와 동급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정(靜)전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다.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V에 달해 번개와 동급이지만 전류는 거의 없어 치명적이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지만 한두 방울뿐이라 떨어질 때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마찰 때문이다.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자들은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이때 전자를 잃은 쪽은 (+)전하가, 전자를

얻은 쪽은 (-)전하가 되어 전위차(정전기)가 생긴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 전기가 쌓였을 때 적절한 유도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한다. 이것이 정전기다.

정전기도 사람 차별하나?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 보인다.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정말 정전기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수증기는 전기 전화성이 있어 주변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을 전기적 중성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가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 원리를 사람에 적용하면 땀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피부를 가진 사람보다는 건성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가 정전기를 결정한다.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마찰전기가 생길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고, 모피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는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한다. 요즘 중학생들은 대전열을 이렇게 외운다고 한다. "털이 유명한 나 고플에" (털가죽-유리-명주-나무-고무-플라스틱-에보나이트)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에 가까우니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를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천연섬유(털가죽, 명주, 면)를 입으라는 말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전기의 발생과는 별개로 사람마다 정전기를 다르게 느낀다.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어린이보다 노인이,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정전기에 민감하다. 남자는 약 4000V가 되어야 전기를 느끼는 반면 여자는 약 2500V만 되도 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 "정전기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

아누스의 두 얼굴, 정전기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위의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섬유 스웨터를 입다 비명을 지른다 해도 그건 개인의 문제니 넘어갈만하다. 하지만 산업체에서 정전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다.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작은 스파크에도 치명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편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접지를 통해 유조차에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정전기를 땅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의 전쟁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반도체 부품은 민감해서 정전기 방전에 쉽게 파손된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자기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만한 저항이 큰 물체를 일체 놓지 않는다.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체에서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

다. 우리 생활에서 정전기는 의외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의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도 정전기의 원리로 공중의 먼지를 붙여 제거한다.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 그릇에 달라붙는 이유도 정전기 때문이다. 감겨 있던 랩을 콧 떼는 순간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니, 랩의 접착력이 시원치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힘차게 떼자. 이처럼 정전기는 우리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주는 존재다.

정전기를 중화하라

정전기를 줄이려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일이 우선이다. 가습기나 여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습 로션 등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합성섬유는 린스로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린스는 (+)전기를 띠어 (-)전기를 띤 합성섬유에 붙어 전기를 중화시켜 준다. 물론 합성섬유 옷보다는 천연섬유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섬유를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평소에 전기를 중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차 열쇠로 자동차 표면을 톡톡 치면 저장된 전기가 열쇠를 통해 빠져나가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운전사가 아니라면 차 문고리를 잡기 전에 손에 입김 한번 불어주자.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확률을 낮춰준다. 정전기가 될 것 같은 물건이라면 땃속 잡지 말고, 손톱을 살짝 닦다가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방전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정전기가 튀는 두 물체 사이의 최대 거리는 $2.5 \times 10^{-7} \text{cm}$ 이라고 한다. 물체가 아닌 사람 사이라면,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만 정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정전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어떨까.

말의 분위기를 바꾸자

공문선 / 커뮤니케이션클리닉 원장

말을 하는 쪽은 너무 많고 말을 들어 주는 쪽은 너무 적다

그 위에 말은 죽는다.

쫄마다 말은 죽어 간다. 도로에서 지붕 아래서, 황야에서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 그리고 역의 대합실에서, 코트의 깃을 세운 채 말은 죽어 간다.

손님 여러분! 열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은 죽어 있다.

가없게도 말은 모비조차도 없다.

말은 흠으로 돌아가고 그 위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

현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4000만 명이 넘는 대다수 사람들이 휴대 폰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6회 이상씩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설 새 없이 말을 주고받는데도 상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내 말이 상대의 가슴에 남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말로서의 가치와 구실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이 제 가치와 구실을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는 말이 그 자체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는다. 입에서 금방 나온 말은 살아서 펄떡거리지만 누군가 들어 주지 않거나 쓸모없게 되면 죽어서 사라지고 만다.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한 말이 끝까지 살아서 상대방이 듣고 싶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말에 생명력을 부여해야 한다.

내 말에 생명력을 주려면 먼저 말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장소에는 가기 꺼린다. 차가운 느낌이 들고 음울한 곳도 마찬가지로 싫어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딘지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짜증내는 말, 슬프거나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같이 이야기 나누기 싫어하고 은연중에 피하려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이다. 엘마 게이즈란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입김을 모아서 냉각시킨 뒤 분석을 해보니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을 밝혀 냈는데 사람의 감정마다 침전물의 색깔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의 입김은 평상시에는 무색이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입김이 핑크색으로 바뀌고 슬픈 말을 하는 사람의 입김은 회색빛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니 거의 검은 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의 침전물이 생겼는데 화를 내는 말을 할 때 입김에서 나오는 이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서 흰 쥐에게 주사를 하니 쥐가 몇 분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한 시간 내내 화를 내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김 침전물을 모았더니 실험용 쥐 80여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방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엘마 게이즈는 이것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명하였는데 이 입김의 독은 생태계에서 독사의 독 다음으로 무서운 독이라고 하였다. 결국 내가 화를 내는 말, 짜증내는 말을 할 때마다 독을 내

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상대방에게 독극물을 주사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흠집 내고 혈투는 말을 우리는 독살을 퍼붓는다고 하지 않는가? 말에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려면 밝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내 말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입버릇을 바꾸는 것이다. 입버릇이란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언어 습관을 말한다. 입버릇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체 구조는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다시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우리의 뇌는 바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 따라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즉시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율신경은 뇌가 결정한 감정의 상태에 충실히 따르는 하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짜증난다”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스스로의 입버릇을 바꿔서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의 결정을 바꿔 줘야 한다. 특히 우리 머리의 뇌파는 질병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뇌파가 바뀌기 때문이다.

평상시 사람의 뇌파는 베타파 상태인데 1초에 평균 20헤르츠 정도의 파장을 낸다고 한다. 그런데 분노나 저주나 불만을 표현 하면 감마파로 바뀌어서 평균 30헤르츠 정도의 파장을 나타내는데 체내 질병을 가속화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명상호흡을 할 때는 평균 10헤르츠 정도의 뇌파의 상태로 바뀌면서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 요가나 명상호흡이나 하는 것들이 인기인데 이런 뇌파의 상태를 만들어 웰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가나 명상호흡보다 두 배나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의 뇌파는 5헤르츠 정도의 세타파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때 혈액은 건강에 좋은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체내 활동이 가장 활발해진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좋아하지만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종교의식에서는 시작 전후에 같은 말을 항상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내용 자체도 대부분 감사함과 관련이 많다. 수백 년 이상을 의식 때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질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말이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내 말에 생명을 불어 넣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말투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바로 접속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같은 접속사를 많이 쓰는데 그 접속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새 옷 입고 나온 부인에게 “옷이 참 예쁘네. 그렇지만 조금 안 맞는 것 아냐”라고 하면 부정적인 접속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긍정적인 접속사로 바꿔서 “뽀매가 예쁘니까 옷도 잘 어울리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된다.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라고 부정적인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접속사를 사용하면 훨씬 듣기 좋고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요즘 웰빙이 유행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웰빙’은 서로 건강해지는 상생의 웰빙이다. 내 말에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

“귀하의 스트레스 관리는 원활하십니까?”

경영혁신실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은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숙련된 상담 전문가들로부터 업무관련 주제부터 개인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애사심 향상에도 일조한다. 상담은 전화와 전문가와의 1:1 면접, E-Mail 등을 통하여 진행되며, 회사와의 계약조건 및 컨설팅 제공업체의 서비스 룰에 따라 상담 내용 및 상담자의 신원과 같은 그 어떤 정보도 회사를 포함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기업경영에서 혁신과 고객만족 등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회사의 내부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고충의 관리, 직원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하기 훌륭한 일터환경(GWP, Great WorkPlace)'을 구축하는 각종 EAP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기 훌륭한 일터'란 조직내 신뢰(Trust)가 높고 자부심(Pride)이 강하며 즐겁고(Fun)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초일류 기업을 중심으로 가장 일반화된 선진 기업문화 구축모델이다.

우리회사도 전사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GWP 모델을 준용하여 일하기 훌륭한 일터환경을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

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개인고충상담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본사 고객접점실 내 YES 지원센터의 운영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식 의식혁신 교육(VIP KOPEC Program)의 실시 또한 GWP라는 큰 밑그림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곧 내부고객인 직원만족은 직원 감동으로 이어져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동인이 되며, 이는 조직 활성화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직원 만족 차원에서 도입한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은 비단 혁신과 고객만족이 회사 직원들에게 딱딱하고 복잡한 개념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속속 도입,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직원만족 프로그램과 직원 감동경영 활동도 각기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취지와 기대효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선진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한기 고유의 혁신적 기업문화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내부직원 만족과 더 나아가 회사 발전의 원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직원 감동경영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사내 전직원과 직계 가족(배우자 및 자녀, 양가부모 포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서 직장 내 문제들뿐 아니라 직장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아울러 단기 상담, 전문가 위탁상담, 전문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생활과 건강한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 개인고충상담 서비스 내용**
- 개인경력관리 및 대인관계 개선
 - 결혼 및 가족관련
 - 자녀교육
 -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 재정관련

〈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 사례〉

내년에 고 3 수험생이 되는 이들을 둔 본사에 근무하는 입사 18년차 홍길동 차장

요즘 아들이 향후 대학진학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적성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회사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의 개인적 고충에 대하여 무료로 해당분야의 전문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개인고충상담 지원프로그램, EAP)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포털에서 우연히 본 생각이 나 밀쳐야 본전이겠다 싶어 상담을 결심했다.

퇴근시간 이후였는데도 상담 서비스 업체인 휴먼다이나믹 아시아 퍼시픽(주)의 무료 상담전화(080-295-4338) 통화 후 아내 상담자와 연결이 되었고, 1차 전화상담 결과 해당분야 전문가와 자녀를 대동한 대면상담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천을 받아 내친 김에 대면상담 예약까지 했다. 2일후 홍차장은 저녁 무렵 야간한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인 수원 아주대 부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실장 권OO 박사의 상담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아이 입장에서 평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전문 상담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인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아였고, 적성과 진로결정에 관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세계적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Holland 진로탐색검사(자체 무료검사)와 추가적으로 성격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외부 실비검사, 8천원)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가 나온 일주일 후 다시 아이와 함께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아이의 성격 유형과 적성, 그리고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유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검사를 통한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당사자, 부모, 전문상담자가 서로 생각하는 바에 대하여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아들과 나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효과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이용하게 되었지만, 의견과 조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자녀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과, 특히 당사자인 아들도 상담결과와 과정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생겼다.



Canon PowerShot-A30

나의 디지털카메라 역사

홍만화 / 기계기술처 차장



Nikon Coolpix100



석모도 민머루 해변에서(Nikon Coolpix100)



뉴욕에서(Canon PowerShot-A30)

카메라의 매력은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나 모습을 남기는데 있다. 거기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부응한 것이 디지털카메라(이하 다카)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1997년에 노트북을 사면서 함께 장만한 것이 30만 화소의 나콘카메라 Coolpix 100이다. 당시에는 메모리도 발달하지 않았으며, USB 포트도 없어 PCMCIA 슬롯에 카메라를 바로 끼워서 외장메모리로 인식하였다. 30만화소로 13장밖에 찍을 수 없어, 노트북에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옮기곤 다시 찍곤 했다. 일반 카메라를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급하게 찍을 사진이 있을 때는 유용하게 이용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2001년에 캐논 PowerShot-A30을 구입하였다. 200만화소에 3배 줌이 되는 카메라로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만화소 다카부터 메모리스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리더기를 통해 사진을 다운받았던 기억이 있다. 위의 제일 오른쪽 사진은 2002년 9월의 테러

사건 이틀 전에 스테이튼섬으로 가는 페리에서 찍은 뉴욕 맨해튼이다. 왼쪽에 나란히 서 있는 빌딩이 이제는 볼 수 없는 무역센터다. 다카에 찍힌 이러한 사진은 내가 보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계속해서 추억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다. 이것이 다카의 매력이고 위력이라 생각된다. 캐논 파워샷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파노라마 기능이다. 파노라마는 앞에 펼쳐진 풍경을 한 컷의 사진에 담을 수 없을 때, 와이드하게 사진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전문다카처럼 광각렌즈가 없는 일반 다카의 경우는 여러번 찍어서 나열하는 수밖에 없지만 캐논 파워샷은 이것을 하나의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현재 최신의 많은 카메라에도 없다. 아래 사진은 강남 무역센터 51층에서 잠실 방향을 바라보면서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했다.

카메라는 대부분 무겁고 부피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개념을 깬 것이 바로 소니의 다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좀더 고화질과 휴대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입한 것이 바로 소니의 DSC-T33이다. 530만 화소에 이너줌과 뷰파인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2.5인치 액정 모니터가 있다. 워낙 작다보니 충전이나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선 크레이들이라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휴대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이너줌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렌즈밖기인 F값이 크기 때문이다. F값이 작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니, 이너줌은 만족할만한 사진을 얻기 힘들다. 특히 실내용 흐린 날, 외부로 돌출되는 줌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화질이나 선명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뷰파인더가 없다보니 눈에서 멀리 두고 사진을 찍게 되고 나쁜 자세로 인해 흔들린 사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젠 좀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산 다카가 2006년 5월에 산 파나소닉 DMC-FZ30이다. 전문가용 DSLR을 살 형편이 안되고 일반카메라 중에서 전문가용에 가까운 다카중 저렴한 것을 구하다가 고심 끝에 사게 되었다. 800만화소에 12배줌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몇 개월 후 문제가 생겼다. 노트북의 메모리가 없어서 확인을 하니 고화질로 찍은 사진이 문제였다. 장당 3Mb되는 사진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찍은 영상의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디지털앨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리하고 DVD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A4 이상의 사진을 인화하지 않는 이상 구태여 고화질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적절한 화질모드를 찾는 중이다.

큰 아이가 태어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잘 보관되어 있다. 앞으로도 일상의 순간을 사진에 담을 계획이다. 메모리 문제로 몇 번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메모리 개발 속도를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계획이 있다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 파워포인트로 어릴적 사진을 정리하고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는 동영상으로 부모의 메시지를 담으면 멋있지 않을까!



▲ 큰아이가 태어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전해줄 계획이다.

▶ 강남무역센터 51층에서 잠실방향을 바라보면서 (Canon PowerShot-A30 파노라마 기능 이용)





원자로설계개발단 신고리 3,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사업관리 부서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핵심기술인 핵증기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설계와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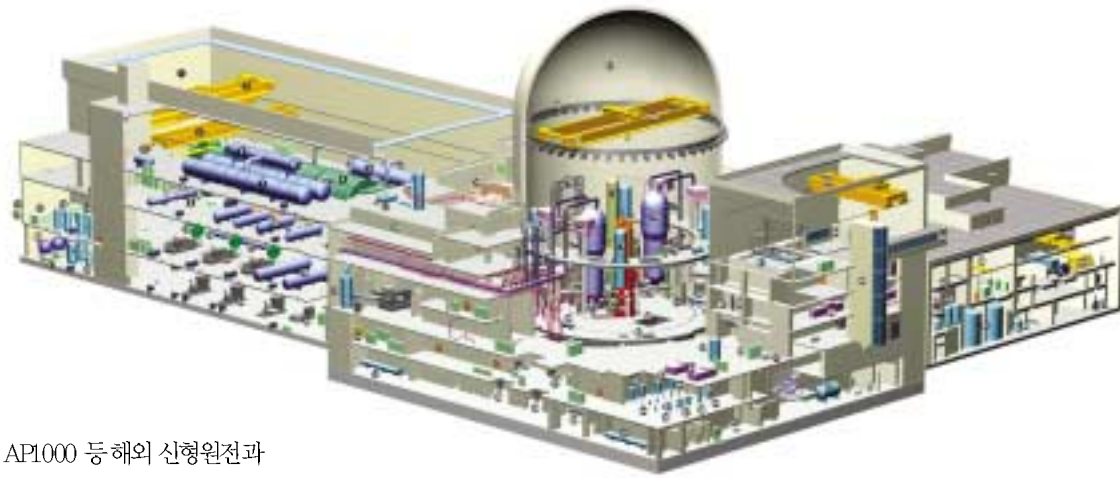
신고리 3,4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에 비해 출력이 40% 가량 증가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제3세대 원전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원전 선진국들이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력 발전 등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신형원전을 개발함에 발맞추어 10여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이다. 1992년부터 국내의 산·학·연이 공동으로 신형 경수로1400(APR1400)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2년 5월에는 국내 원자력법에 따른 최초의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06년 8월 우리나라 원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신고리 3,4호기의 주설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드디어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고리 3,4호기 건설은 APR1400의 기술 및 경제성을 입증함으로써 EPR, APWR,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광일 부장, 서경희 과장, 이소림 차장, 박순희 부장, 박미옥 대리, 김인식 상무, 박현우 부장, 백세진 처장, 설영실 차장, 강동일 차장, 백승수 차장, 오혁성 차장, 정석환 차장, 윤기석 처장.

Teamwork

백승수 / 원자로안전처 차장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



AP1000 등 해외 신형원전과
의 시장 경쟁에서 APRI400의 입지를 다지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신고리 3,4호기는 현 고리원자력본부 인접 부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되며, 2013년 9월과 2014
년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원자로가 놓여질 원자로건물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2008년 10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2011
년 7월에 시운전 시험용 전원에 대한 최초 기압수행, 2012년 5월에 상온 수압 시험, 2013년 1월에 연료장전을수행할 계획으
로 추진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 부서는 해당 용역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설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계약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설계 및 사업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
기까지 들인 노력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원자로계통설계와, 계약관리, 대외창구, 기술조정, 설계연계,
인허가, 공정, 사업행정, 예산 등의 관리업무,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과 고객지원에 위한 업무까지도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직
접 수행한다.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 부서는 2006년 3월 사업 중심 형태로 원자로설계개발단 조직이 변경된 이후로 어
떤 분야의 어떤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이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얼굴이 아름다운 웃음과 풍요로운
감성을 가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로 어우러져 있다. 사업책임자인 김인식 상무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의 소유
자로 뛰어난 추진력과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업부책임자인 백세진 차장은 많은
설계지식을 배경으로 신고리 3,4호기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책임자를 보좌하여 사업부서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인 조율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조정 책임자(1) 오혁성 차장은 후덕한 인상 및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산중공업 및 WEC
와의 대내외 기술연계업무, 하도급계약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기술조정 책임자(2) 설영실 차장은 훗날 미모와 풍부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A/E와의 기술연계업무, 설계현안 관리 등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다. 각 기술분야에서는 원자로계통분야
의 윤기석 차장, 원자로계측제어분야의 백광일 부장, 원자로안전분야의 지성구 부장이 설계분야책임자로서 해당분야의 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현장 실무 및 설계 경험을 갖춘 고객지원분야 책임자인 박현우 부장은 현장의 긴급한 문제
를 해결하고 현장 관련 용역 개발 및 고객지원 업무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 늘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관리 부서에서 울진원자력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역으로는 APRI400 고유 RPCS 설계 및 최적 평
가, 울진2발 SI 역지밸브 침부식 개선 설계 지원, 울진3호기 아르곤 기체 주입 계통영향 평가, 울진3발 DPPS 주기시험개선
RPCS 기능 확장을 위한 평가, 울진2발 원자로계통설계 I&C 계통 교육, RETT 역무수행 용역 등이 있다.

기술관리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설계 및 사업 경험을 가진 박순희 부장의 지휘 하에 정석환 차장과 본인이 계약 관리, 사업
문서 및 설계결과물 관리, 설계결과물 유지 및 현황 관리, 사업공정 관리, 대외 회의 및 인허가업무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사업운영분야는 행정책임자인 강동일 차장과 이소림 차장, 박미옥 대리, 서경희 과장이 사업 예산의 수립, 기성 및
실적 관리, 계약 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 사업부서가 개발한 사업에 대한 수치분석 및 입찰 그리고 부서 행정업무의총괄 및
사업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개성과 사고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언뜻
화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신고리 3,4호기 원자로계통설
계사업관리 부서는 사업책임자를 중심으로 각자 맡은 분야
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돕기를 자처하며 “세계 최초·최고
의 원전 우리가 설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밤낮 없이 목표
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다우베 드라이스마 지음 / 김승욱 옮김 / 에코리브르

이태윤 / 원자로설계개발처 차장



사람이 죽고 나면 망각의 강을 건너거나 어떤 샘물을 마시면 기억이 까마득하게 지워져 백치 상태에서 환생한다는 설화도 있지만 망각이란 살아 생전에도 부단히 일어나는 기억의 소멸 현상이다. 30대에 가속도가 붙어 50대쯤이면 일 년이 한 달 같이 느껴진다는데 이쯤이면 망각은 축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간은 왜 속절없이 이렇게 빨리 갈까.

분명히 어릴 적 설날과 소풍, 운동회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시계는 천천히 똑딱거렸다. 그런데 마흔이 지나니 달력이 휙휙 스쳐 지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 책은 시간과 브네모시네(그리스신화의 기억의 여신)의 법칙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 의식을 주로 다루었다. 가물어져 가는 의식 속에 이 둘을 함께 잡으려 애쓰는 사람에게 마땅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심리학자인 저자가 주로 동원한 방법은 각종 기록문헌과, 정신의학, 신경생리학의 데이터들이다.

왜 우리는 다섯 살 이전의 기억이 없을까. 왜 치욕의 기억은 지워버리려 해도 더욱 생생해질까. 왜 우리는 최초의 기억, 첫 만남, 첫 키스 등을 오래 간직할까. 기억 중에서도 삶의 연대기 같은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 힘이 세다고 한다.

이 책은 평소 신비롭게 여긴 인간 의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기시감(deja vu), 생체시계, 사람이 죽기 직전 생애를 한 순간에 회고하는 주마등 현상, 반대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 시간이 초저속도로 느려지는 현상 등을 설명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방(savants) 증후군으로 계산, 기억, 예술 능력에 비범한 천재가 본래는 자폐아적 속성을 가진 전체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가나?” 그 근본 원인은 단순, 반복적 일상을 거듭할수록 두뇌는 이를 차츰 무의식화 하여 머릿속에 시간과 기억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롭고 활기찬 나중의 기억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지혜라 할까. 따라서 시간을 더디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낯선 체험에 몸을 던지고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보게 하는 주문이다.

누구에게나 물리적으로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인생에서 시간을 지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갑작스레 일기를 쓰고 여행을 떠나고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나고, 미처 해보지 못한 모험과 취미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이 싹튼다. 과연 우리는 죽는 순간 몇 개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떠나는 걸까. 그 기억이 차지하는 시간은 정말 얼마쯤 될까.



제17회 한기문예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제17회 한기문예가 성황리에 완료되어 지난 12월 13일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한기문예전은 시·시조, 수필, 콩트, 아동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직원 화합 및 건전한 기업문화 활성화에 큰 장이 되었다. 시·시조부문은 김명인 교수, 수필과 콩트부문은 문정희 시인, 아동부문은 박두순 아동문학가가 각각 심사를 하였으며 영예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시·시조 부문**
 우수작 : 가을역 근처 (김미예 / 토목기술처 최만기 차장 부인)
 가작 : 옥저도의 바다 (김성원 / 원자로사업관리실 김교상 부장 자녀)
- 수필 부문**
 최우수작 : 전죽된 인생 (김훈이 / 배관기술처 김성남 과장 부인)
 우수작 : 소렌토로 가는 길 (임정현 / 원자로계통처 대리)
 가작 : 하숙집 엄마 (양복연 / 환경기술실 대리)
- 콩트 부문**
 우수작 : 다음 정차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정재형 / 기계기술처 차장)
- 아동 부문**
 최우수작 : 가진 자의 의무(김현근 / 사업관리기술처 김운명 차장 자녀)
 우수작 : 기계 (이형찬 / 기계기술처 이상민 과장 자녀)
 가작 : 낙엽 (박지현 / 원자로계통처 박원배 과장 자녀)

전족(纏足)된 인생

김훈이 / 배관기술처 김성남 과장 부인

마갑고도 질긴 초가를 햇살이 도무지 시들 줄을 모른다. 먼지 같은 일상이 쌓이고 쌓이기를 수차례, 그제야
마지못해 기척도 없이 뒷걸음치며 또 하루가 조금씩 사그라진다. 그 안타까운 실랑이도 어느새 희미한 저녁
빛에 묻혀 버리고 그래도 질기게 남은 땃땃은 내 발 뒤꿈치에게 달라붙어 작은 울먹임과 하소연을 여기저기에
손톱을 세워 하얀 자국을 활취어 남기며 한 몸뚱아리로 남고자 인간힘을 쓴다.

그냥 두자니 이 가을 내내 갈라지고 두터운 발바닥으로 지낼 수도 없고,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성난 그들이
줄음에 겨울만치 따뜻한 수온으로 달래며 차분히 철없는 까끄라기들을 떼어내기 시작한다.

이제는 나조차 그 나쁜 잠기운에 전염되어 시간이 마냥 멈춘 듯하다. 그만하면 이별식은 끝내두고 두 발에
로션을 발라 놓고 마르기를 기다리며 반쯤 누워 하릴없이 그것들을 쳐다보며 한결같은 푸념을 되뇌어 본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발은 어담하다고는 할 수 없는 모양새다. 넓적한게 거기다가 볼이 두툼기까지 하여
기늘고 좁장한 외씨버선하고는 확연히 정반대의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도 부모형제가 모두 그렇다면야 동류의식으로라도 위로를 받겠건만 유독 하늘 아래 나만이 도둑발인 관
계로, 아닌 말로 주위 온 게 아닌지 유년기엔 가슴앓이도 꽤 많이 했더랬다.

발생감이 이렇다 보니 하이힐이라던가 스틸레토 힐로 멋 남성들의 시선을 받아보는 호사는 한 번도 누려 보
지 못한 채 오로지 운동화와 편상화에 길들여져 한없이 자유롭게 상하좌우로 거침없이 성장한 내 발이다.

그렇다고, 그 발에 걸맞게 운동을 잘 하지도 즐기지도 않아 그 덕을 본 적도 없다. 오히려 한 자리에 앉아 책
보기를 즐겨 했다.

어쨌거나 기억에 남는 책도 작은 발에 대한 찬사가 담긴,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펄 벅 여사-어머니가 전도사
와 결혼해서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관계로 그녀의 작품 속에는 늘 중국의 생활상이라든지 풍속이 곧잘 묘사
되어 있다-가 쓴 「모란꽃」이라는 소설이다. 거기에 보면 중국인 호상의 딸인 '쿠에일랑'이라는 전형적인 중국
여인이 자신의 전족한 발이 얼마나 작고 예쁘지 자랑하는 대목이 나온다. 쉰 쉰의 비단 꽃신에 앙증맞게 속
들어간다는 장안에서 제일 작은 쿠에일랑의 발은 한때 내게 동경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전족에 대한 내 터무니없는 환상과 부러움은 인터넷상의 사진과 설명으로 최근에는 비로소 깨졌다.
중국에서는 3~4세의 여아의 발을 목면으로 감아, 발의 성장을 저지시켜 전족(纏足)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옆
으로 감아 발을 가늘고 길게 만든 다음 이어, 길이로 감아 두 번째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을 안쪽으로 굽어지게
만들어 발을 전체적으로 마름모꼴로 만든다. 발의 크기는 약 10~13cm에 머무르게 되고 5~6세가 되면 기본



형태가 된다. 그 이후에 전족포를 벗기고 전족용 신발을 신게
되는데 송대 이후 시작되었다가 청대에 가서야 금지령이 내려
청 말기에야 폐지운동이 일어나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악습이
었다는 것이다. 실제 사진은 더 처참했다. 본인들의 화사한 미소
와 상반되는 신발속의 그 고통과 기형이라나.....

이제 예순을 맞는 어머니의 작은 발은-정작 본인은 한결같이 무심한-언제나 내게는 부러움과 시기의 대
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 둘째딸의 발에 대한 길고 긴 푸념에, 자신의 발에 대
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운을 댄다.

“이게 사연이 있는 발이다.”

“무슨?”

여간해서는 옛이야기를 잘 안하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인지라 무척 궁금하다.

“작은 운동화를 새로 사 신지 못해 자연 전족이 된 거야.”

“왜? 사달라지.”

“애들은 많고 돈은 없는데, 어째. 그래 내 말을 못했지. 동생들 틈에.....”

나는, 나는 쉰 쉰의 꽃신을 위해서나 전족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어머니는 누나로서 언니로서 입이 안 떨어져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좁장한 발로 전족이 되어버린 게다. 그리고 환갑이 되도록 꽃신은커녕 그 발에는 언제나 드물게 새
신이 주어졌고 지금까지도 딸들의 신다 버린 유행 지난 신발들의 마지막 종착지 역할이 주어진 게다.

이제는 오래전에 오그라들어 육체적 아름다움이야 없겠지만 마음조차 그렇게 오그라들어버린 어머니, 우리 자매도 어머니의 또
다른 '전족포'였나보다.

어디 우리 어머니뿐이라! 불과 십수 년 전엔 어느 집이나 있었던, 일과 인내가 삶 자체였던 누이와 언니들의 알려지지 않고,
들려주고 싶지 않은 옛이야기일 뿐이다.

어머니의 전족된 발에 대해 과연 그 그늘에 깃들여 자란 동기간들과 우리들은 얼마나 보상이 되는 존재들일까? 나는 그 대담
에 별로 자신이 없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란 둘째 딸의 큰 발이 당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그도 난 모르겠다.

다만, 이 말만이 가슴에 차오른다.

엄마, 다음번엔 부디 내 딸로 태어나라. 내 철철이 빛깔고운 꽃신 신겨 키워 드릴게.....'

당선소감

아직도 상을 타면 제일 먼저엄마 생각이 나는 건 제가 털 자란 걸까요? 당신애기를 썼다는 말에 겸연쩍어하시면서도 기뻐하시니 제 기쁨도 배가 되
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일기친척모두가 기쁜일을 진작 이루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로 남편과 두 딸, 시댁어른들까지 축하세례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바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그치지 않을함박눈 같은, 한껏 부푼제 마음을 김구선생님의 귀한 글귀로 다잡으며 더
욱더 정진하고자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리니” 앞으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써서 사람에 대
한 사랑이 담긴 마음의 노래를 담아낼 줄 아는 작은이야기꾼이고 싶습니다.

가진 자의 의무

김현근 / 효성초등학교 6학년, 사업관리기술처 김윤명 차장 자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를 실천해서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을 본받아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를 실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경주에서는 최부잣집은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또, 11대 후손인 최준은 상해 임시 정부에 독립 자금을 댔으며, 해방 후 전재산을 영남대학교 설립에 기부했다.

그리고 이회영은 독립운동을 위해 명문가라는 위치를 포기하고 전재산을 가지고 만주로 갔다.

또 유일한은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손녀의 학자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제' 는 사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 실천되는 사회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당선소감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문예작품 공모를 한다고 하여 가진 자의 의무란 제목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기문예전에는 한번도 응모하지 않아서 우리가 좋은 참가상이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참 기쁩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왔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글을 써서 다음 대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조부문 심사평

심사위원 · 김명인 / 고려대학교 교수, 시인

예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올해의 응모작들은 그 수준에서 다소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날이 각박해져만 가는 삶의 현실이 시심(詩心)조차 메마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염려되었다. 전문 시인들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이 서정시를 즐긴다는 것은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자신의 진정성과 만나 삶의 여분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시를 쓰다보면 스스로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그만그만한 응모작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고려한 것은 김미에 씨의 '가을 역 근처'와 김성원 씨의 '육지도의 바다', '능소화' 두 편, 그리고 송민섭 씨의 '가을 하늘'이었다. 이들은 다른 응모작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시적 형상화에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되었다. 김미에 씨의 시편은 서정시의 근사치에는 어느 정도 접근해 있었다. 그럼에도 그 분위기의 절절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감정의 토로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정서와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김성원 씨의 시는 다른 응모작들의 시편에 비추어 표현의 구체성에 호감이 갔다. 그러나 시가 공명의 폭을 넓히도록 소박하고 평범한 시어의 운용을 반성해야 할 것 같았다. 송민섭 씨의 시는 간결한 문체가 어느 정도 서정시의 골격을 갖추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그 상투성이 눈에 거슬렸다. 고심 끝에 선자는 결국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KOPEC가족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 시의 계기들을 더욱 즐겨보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길 바란다. 모쪼록 분발해서 아름답고 끈질긴 시로 내년의 지면을 장식해 주길 당부한다.

수필, 콩트부문 심사평

심사위원 · 문정희 / 시인, 수필가

속도와 물량이 넘치는 시대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응모된 문예작품들을 읽는 마음이 각별했다. 최종심에 오른 수필 17편과, 콩트 3편을 면밀히 읽었다. 그 가운데 최우수작에 선정된 '전족된 인생'의 김훈이 씨는 습작의 내공이 많이 느껴지는 글솜씨였다. 어머니의 발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억압을 상징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중간에 삽입한 예문들도 적절했다. 우수작 '소렌토로 가는 길'의 임정현 씨는 기행문 형식의 글이지만 현장의 실감을 우리나라 역사와 오버랩시키면서 자칫 토막 상식으로 나열되고 말 뻔한 감흥들을 잘 표출해내고 있었다. 가작 '하숙집 엄마'의 양복연 씨는 하숙을 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긴 어머니의 훈훈함이 글 전체에 은은히 배어있었다. 콩트는 응모 편수는 3편이었지만, 정재형 씨의 '다음 정차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는 콩트형식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 끝부분에서 단순히 역전이 아니라 페이스까지 느껴져서 우수작으로 선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응모해 준 분들께도 심심한 격려를 보낸다.

아동부문 심사평

심사위원 · 박두순 / 아동문학가,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응모된 50편의 시와 산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어린이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함께 글을 쓴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으로 살찌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작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글에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다. 글에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글이 뚜렷해야 한다. 뚜렷한 글은, 글을 쓴 까닭이 분명하고, 중심 생각(주제)이 확실하며, 느낌이 풍부해야 한다. 최우수작에 뽑힌 글은 짧은 논설문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해이해진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술한 것이다. 주제 의식이 뚜렷하게 서술되었고, 설득력이 있으며, 글을 쓴 목적이 명쾌한 글이다. 그것은 최부잣집과 이회영, 유일한 같은 인물이 했던 역할을 예증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뒷받침되었다. 다만, 이회영이나 유일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조금만 밝혀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목도 '가진 자'보다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 것이 어떨까? 글의 중간에 '그렇게 되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수작에 선정된 시는 '기계가 / 불쌍하다'는 자신 나름대로의 느낌이 좋다. 일만 하는 기계가 왠지 안쓰러워 보였다는 뜻이다. 시는 사물을 대했을 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계가 생각, 심장, 마음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한 점도 돋보인다. 그런데 이 시는 '마음이 있을까' 다음을 연결해 3연으로 하면 좋겠다. 가작에 든 작품은 '낙엽은 사람이 주우면 / 날 사랑해?' 하는 소리를 들은 귀가 밝고 소중하다. 귀여운 시이다. 다만, 2연의 '바스락'이란 말은 없는 것이 더 좋다. '사랑해?'란 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입상작은 모두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는 글이며, 글을 쓴 까닭도 뚜렷하다. 입상을 축하한다.

세대간 본격적인 빈부격차, 머지 않았다

유병률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흔히 빈부격차라고 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간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부격차는 세대간에도 존재하고, 이런 세대간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세대간 고통분담 구조를 보면 고통은 30대 이하의 후(後)세대에 집중되고 혜택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성세대 노후비용 대노라 後세대 등이 험다?

우선 한국사회 세대간 고통분담과 혜택의 대차대조표는 후세대로 내려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큼니다. 기성세대 부양에 들어가는 부담이 워낙 충격적 수준으로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인구구조에서는 16~64세 생산가능인구 7.9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됩니다. 생산가능인구라 함은 그래도 일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연령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2030년에는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양 받을 사람은 늘고, 부양할 능력이 되는 근로세대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복지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연금, 공공의료비, 수당 등 정부 복지지출의 62%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적 약자가 아니건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른 세대의 복지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일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근로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국방비와 경제예산, 복지예산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의 씬씀이(공공지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04년 13%에서 2020년 30%, 2030년 40%, 2040년 5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년 후부터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과 노인 1인당 공공지출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64세 이하 사람이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노인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혜택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도 최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근로세대가 내게 될 보험료 수입에 비해 노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비대한 것은 여전합니다.

후세대일수록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인구 비대형 인구구조로 급변하면서 부동산·주식 등 소위 부(富)의 세대간 선(善)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40대 후반~50대 초반인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

하는 약 7~8년 후가 되면 이들의 은퇴 매물이 쇄도하면서 집값이나 주가 등 자산시장의 수익률이 세대를 거치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젊을 때 모아놓았던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서서히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의 분배' 측면에서 보면 숫자적으로 더 열세인 후세대는 현 기성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내놓는 매물은 주로 지금의 30대가 소화해주게 되는데, 정작 30대가 은퇴할 무렵에는 자신들의 매물을 소화해 줄 현재 20대 세대의 숫자적 열세로 손해 보는 자산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현재 30대는 821만 명에 달하는 반면, 20대 인구는 733만 명으로 30대에 비해 90만 명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자산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피해는 30대 이하 세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통계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최대 수요 세대는 통상 40대 후반~50대 초반입니다. 이중에서도 40대 후반의 자산수요가 가장 왕성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아파트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34%(면적 기준)를 40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50대가 24%, 60대가 15%, 30대가 14% 등의 순입니다. 또 한국증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식 보유 또한 40대 초반에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44세가 1인당 269만원, 45~49세는 232만원, 50~54세가 210만원 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각각 201만원과 127만원으로 낮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40대가 가장 큰 손으로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40대 인구의 비중은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10년 이전에 부동산 보유 절정시기가 마감되면서, 수익률이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 이후 최근 집값 폭등도 세대간 부를 둘러싼 분배의 불평등한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2000년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40대의 지식교육과 평생 늘리기를 위한 강남 투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불평등도 심각하다

세대간 일자리를 둘러싼 불평등 역시 잠재된 시한폭탄입니다. 상당수 중·장년들이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덕분에 일자리를 보호 받고 있는 반면, 20대들은 취업을 위해 세대 내 경쟁은 물론, 기성세대와도 가혹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후세대 소득이 감소하는 것 또한 갈등의 가폭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성노조의 인위적 장벽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대의 실업률(2분기 기준)은 2002년 6.3%, 2003년 7.4%, 2005년 7.6% 등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현세대의 '사고 처리비용'도 고스란히 후세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적자금 상황입니다. 상황액은 168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3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 상환부담의 75%를 외환위기와 상관없는 30대 이하 세대로 돌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50~60대는 5.6%, 40대는 20%만 책임지면 됩니다. 반면 30대 30%, 20대 26%, 10대 13%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의 사고수습을 자식이 성장해서까지 깊어야 하는 셈이죠.

이렇게 볼 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후세대에 잿빛 미래를 안겨주는 지금의 고통분담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에 부담(세금증대,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도 늘리면서 복지를 늘리든, 아니면 부담은 늘리되 혜택은 후세대에 돌아가도록 하든, 세대간 고통분담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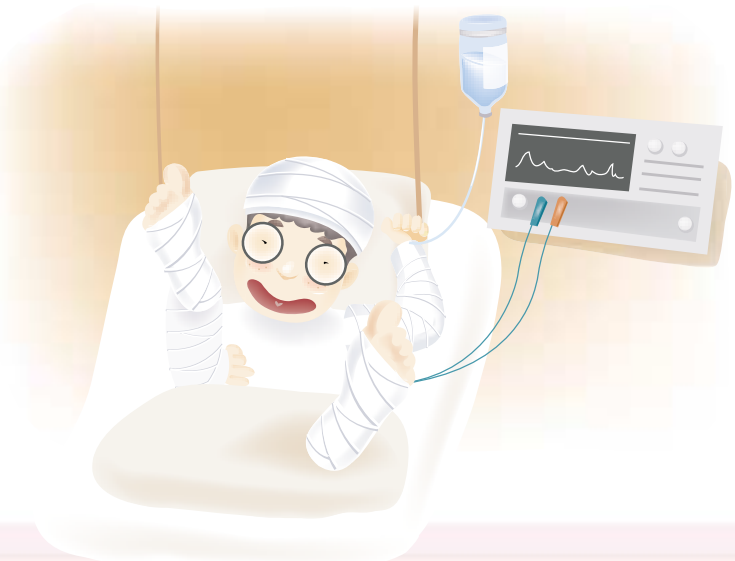
임호준 / 조선일보 의료건강팀장, 헬스조선닷컴 운영본부장

얼마 전 먼 친척으로부터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하니 큰 병원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동맥경화가 심하게 와서 혈관을 갈아 끼우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4~5년 전부터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경련을 하듯 아파 오래 걷지 못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최근 도무지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소개시켜주며 저는 "심해지면 나중에 다리를 잘라야 하는 수도 생기니 당장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상의 남성들 중에는 다리가 묵직하고 아파 오래 걷지 못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뚱뚱한 사람, 고지방식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만약 1)걸을 때는 아프지만 쉬면 낫거나 2)항상 다리가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힘이 없거나 3)다리나 발이 항상 차갑거나 4)다리나 발의 일부 피부색이 검게 변했거나 5)다리의 털이 자꾸 빠져 없어지거나 6)다리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거나 7)다리나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8)발이나 발가락이 쉼 때도 타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말초동맥질환' 또는 '하지허혈증(下肢虛血症)'을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한 증상 중 두 세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말초동맥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초동맥질환 또는 하지허혈증이란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관상동맥이나 뇌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듯이 다리의 동맥에 경화가 생겨 다리의 통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혈관의 내벽이 딱딱하게 변하는 동맥경화는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위험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폭증하면서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하지허혈증도 같은 뿌리에서 생기는 병이므로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이나 흡연과 당뇨병이 있는 50~69세 인구의 13%가 다리 동맥경화 환자였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만큼 중하지는 않지만 다리의 동맥경화도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을 갑자기 혈전(피떡)이 막아 버리면 다리와 발 조직이 썩으면서 죽어, 심한 경우 다리나 발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지허혈증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하지허혈증 환자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여겨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워낙 수개월에서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는데다, 처음엔 걷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걸을 때 주로 장단지가 아픈 것입니다. 보통 한 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더 아프며, 일정 거리를 걸은 후엔 꼭 증상이 나타납니다. 언덕을 오르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아무런 불편 없이 걷던 거리가 운동을 언제부터인가 휴식 없이는 할 수 없으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이 진행되면 걷지 않고 쉼 때도 통증이 생기는데, 이때쯤 되면 발이나 발가락에 구멍이 뚫리면서 썩는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면 발이나 발가락을 잘라야 하는데, 특히 당뇨 환자는 다리 절단 위험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병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목의 혈압을 재보는 것입니다. 혈압계를 발목에 돌려서 나온 수치가 자기 혈압 수치의 80~90% 이하라면 일단 하지허혈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혈관초음파, CT, MRI,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하지허혈증으로 진단이 되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묽게 하기 위해 저(低) 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다리로 가는 혈액의 양을 더욱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삼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병이 상당히 진행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개 의료용 풍선이나 금속그물망(스텐트)을 넣어 좁아진 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합니다. 동맥경화가 이보다 더 심해 혈관을 넓힐 수 없는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정맥이나 인조혈관을 이용해 갈아 끼우는 '대퇴동맥우회수술'을 합니다. 혈관을 넓히는 시술은 부분 마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우회수술은 입원을 한 뒤 전신마취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하지허혈증 환자는 심장의 관상동맥이나 뇌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하지허혈증이 있으면 심혈관 검사도 꼭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 슬로푸드

오윤현 / 시사저널 기자

얼마 전 서울 관훈동 맥도날드 매장에서 레이 프롤리 한국맥도날드사 사장을 만났다. 아침 메뉴로 개발한 '백 모닝'을 홍보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는 '슬로푸드 운동과 패스트푸드 거부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별 상관없이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온가족이 즐기는 음식을 쿵 서비스하는 레스토랑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책임자로서 그의 말은 적절해보인다. 그러나 딱 20년 전에 시작된 슬로푸드운동의 역사를 돌이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의구심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과연 맥도날드 햄버거는 패스트푸드인가, 아닌가?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맥도날드 햄버거의 이탈리아 로마 입성을 반대해 시작되었다. 슬로푸드 운동을 주도한 카를로 페트리니 씨와 그의 친구들은 당시 이렇게 외쳤다. "맛을 표준화하고 전통 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고, 식사와 미각의 즐거움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는 음식을 즐기자!" 이후 슬로푸드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2006년 10월 현재 1백여 회원국과 8만여 회원을 거느린 거대 운동으로 발전했다(한국에도 지부가 있다).

그렇다면 슬로푸드 운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내용을 알려면 일단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슬로푸드 운동가들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빠르게 먹는 음식'을 말한다. 대표 선수는 햄버거와 치킨 등이다. 눈치 챌겠지만 이들 음식은 '영양소가 불균형하다'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다'라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햄버거는 높은 열량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패스트푸드로 꼽힌다(김종덕 지음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반면 슬로푸드는 '보통 느리게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로푸드를 단순히 천천히 먹는 음식으로만 기억하면 곤란하다. 슬로푸드 운동가들이 내세우는 슬로푸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음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하고, 음식과 재료를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슬로푸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슬로푸드는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건강하고 즐겁고 여유 있게 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슬로푸드국제본부 방주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슬로푸드의 개념을 좀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방주위원회의 '방주'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뜻한다. 그러니까 방주위원회는 음식 평준화 및 세계적 유통망이라는 '거대한 홍수'에 맞설 고품질 음식과 생산물을 찾아 구조하는(기록하는) 곳이다. 멸종 위기에 있다가 되살아난 일본의 쌀, 멕시코의 카카오 콩, 낙타 젖으로 만든 멕시코의 치즈, 터키의 양귀비로 만든 꿀 등이 '방주'에 오른 품목이다. 방주에 오르

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독특하고,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아야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식품이어야 한다 △표준화된 음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설자리를 잃은 식품이어야 한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뚜렷한 지역성을 가져야 한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해진 기술로만 들어야 한다 등등.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일지라도 재료나 맛이 획일적이거나, 만드는 방식이 엇비슷하면 슬로푸드가 아닌 셈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음식 문화에서 놀랄만큼 많은 것이 변하거나, 변해가고 있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음식으로는 식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 젓갈, 장 등이 있다(한편 경남 남해의 죽방멸치나 거문도의 홍어회, 강원도의 손으로 만드는 막국수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 슬로푸드라 할 수 있다).

「슬로푸드, 슬로 라이프」

를 쓴 김종덕 교수(경남대)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먹는 음식은 100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 과거에는 음식의 종이 1백~120개였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10~12개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서 100여 년 전에는 100~120종의 나물을 섭취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30여 종밖에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숫자마저도 점점 주는 추세이다. 다국적 식품회사와 거대 식품회사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치극적인' 식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슬로푸드는 많은 사람에게 '남의 일'이다. 웬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실천하는 '특별한 행위'로 인식되는 탓이다. 그러나 슬로푸드국제본부 지코모 모졸리 부회장은 "슬로푸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지지난해 봄 그는

기자에게 "슬로푸드 운동은 결코 어렵고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슬로푸드 운동은 '몸과 정신에 도움을 주는 자연산 음식을 찾아 즐기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차나 옷을 바꾸는 데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에는 돈을 아끼는지 모르겠다"라고 모졸리 부회장은 말했다. 김종덕 교수도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슬로푸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일단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가공된 수입 식품과, 패스트푸드로 알려진 햄버거, 콜라, 피자 따위를 먹지 않는다. 그 다음 공장 식으로 생산되는 식품(포장 김치, 소시지, 장(醬), 반찬류, 라면, 과자 등등)을 피하고, 설탕이나 소금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을 삼간다. 대신 식탁에는 우리나라 유기농 농산물을 올리려 노력한다.

무조건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조리해 먹는다고 슬로푸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곱씹으며 음미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신이 먹는 쌀이나 감자, 고구마, 과일을 생산하는 농부들과 대화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휴대폰을 꺼두는 것도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다. 슬로푸드, 뒤늦게 인식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슬로푸드 자체가 원래 느린 것 아니던가.



2020년까지 발전소 39기 짓는다

2020년까지 총 29조원이 투입돼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39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산업자원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등을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 12월 11일 발표했다.

한전, 중국 발전·석탄개발 4300억 투자

한국전력이 4300억원을 투자, 중국에서 대규모 발전과 석탄개발 연계사업에 진출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에서 산시성 최대 발전회사인 산시국제전력집단지공사(SIEG), 도이치뱅크 등과 함께 발전소 인수 및 건설운영, 석탄광 개발을 위한 합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17일 밝혔다.

원전 안전성 평가기술 미국 수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정우식 박사팀이 개발한 원전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세계 최대 원자력 연구기관인 미국 전력연구소(EPR)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기로 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특히 최근 열린 국제원자력학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향후 세계 원자력계의 표준 평가 시스템으로 쓰일 전망이다.

세계최대 매립가스 발전소 준공

수도권매립지 내에 설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50MW 매립가스 발전소가 지난 12월 12일 준공식을 갖고 상용운전을 시작했다. 이 발전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고유가 시대에 폐기물을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도모하고, 악취 등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서울에 태양광발전소 설립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인 독일 썬텍크닉스가 서울에도 1.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새로 착공하는 등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썬텍크닉스는 올해 한국에 현지법인 썬텍크닉스유한회사를 설립, 인천지역과 전남 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1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2기를 준공했다.

프레온가스 85% 감축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기준량 대비 85%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12일 오존층파괴물

질 생산업체와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꾸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16개 오존파괴물질에 대해 내년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비파괴 검사기술 육성에 5년간 726억 투자

과학기술부는 오는 2011년까지 비파괴 검사기술 진흥에 총 726억원을 투자, 이 분야의 기술을 세계 5위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비파괴 검사기술은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를 감시하거나 구조물 내부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비파괴 검사기술은 선진국의 45% 수준으로 검사기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연구소 이온빔장치 제작기술 이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최근 설비제작 전문기업 아이시스에 산업용 이온빔 장치제작 기술을 이전했다. 이로써 반도체 불순물 도핑에 주로 사용되는 이온빔이 정전기 방지, 내구성 향상, 미세가공, 인공관절 등 비반도체 분야로 쓰임새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형 IGCC 개발 추진

한국형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2일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IGCC 기술 개발을 위한 발대식을 하고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기관 3자간의 협약식을 진행했다. IGCC 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5992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 전자 눈 만드는 반도체 기술 세계 첫 개발

포스텍(포항공대)은 "신소재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안종현 박사가 인공 전자 눈이나 구부릴 수 있는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이중(異種)집적전자소자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지난 12월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사이언스지 지난 12월 15일자에 발표했다.

적외선 센서로 열 추적 위성 쏜다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나 지상·지하 핵시설물 등에서 나오는 열을 탐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위성을 2012년

에 쏘아 올리기로 했다.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70cm급(가로 세로 70cm의 물체가 사진에 한 점으로 표시되는 것)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 개발에 착수기로 의결했다.

벡터장 현미경 세계 첫 개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대석 교수는 지난 12월 22일 편광성을 이용해 빛의 전자기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벡터장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빛이 전자기파로 이뤄져 있다는 것은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자기파의 벡터적 성질 즉 세기와 방향이 육안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일본 '전원 시트' 개발

올려만 놓아도 전자제품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원 시트'가 일본에서 개발됐다. 지난 12월 4일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이 시트는 마주보는 코일의 한쪽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때 발생한 자계가 다른 쪽의

코일에도 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전자유도 현상'을 응용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담수화설비 비용 대폭 절감

GE글로벌연구센터와 텍사스테크대학교(TTU)가 풍력발전소에 바닷물을 음용수로 전환하는 탈염시설을 접목해 물 부족 지역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탈염시설 운영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리뉴어블에너지엑세스'가 지난 12월 18일 보도했다. 그동안 탈염시설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해 비용, 환경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미국 액화석탄 개발 뜨겁다

고유가시대의 대체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액화석탄(coal to liquid·CTL) 개발에 미국 등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석유에 비해 값이싼 데다 환경에 대한 영향도 전혀 없으며 에너지의 외국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미 공군은 최근 석탄에서 추출한 액화석탄으로 B-52기를 운행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2월 18일 전했다.

씨클 동 정

본사 스키/스노보드회 시즌 1차행사 개최



본사 스키/스노보드회는 지난 12월 9일 용평리조트에서 이번 시즌 1차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 전날 저녁 및 당일 오전 함박눈이 내리고 춥지 않은 날씨 가운데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원자로설계개발단 흑백기사회 3회 바둑대회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 흑백기사회는 지난 12월 5일과 6일 일과후에 발전로설계동 2층 회의실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회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실력별로 갑조(4급 이상), 을조(5급~7급), 병조(8급 이하)로 나누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이번 대회는 각 조별로 새로운 우승자를 배출하여 더욱 흥미진진한 대

국이 되었다. 대회 결과 갑조는 박찬익 차장, 서성기 차장, 배창준 차장 및 김택모 차장이, 을조는 이규천 부장, 문선창 차장, 유희남 차장 및 진영권 차장이, 병조는 하재홍 차장, 김성래 차장, 장훈선 부장 및 이정양 차장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 및 공동3위를 차지하였다.

인 사 동 정

차장(책임급)

이오성 · 간설사업관리실
박용일 · 권혁진 · 계측제어기술처
강상호 · 원자력기술처
김정만 · 전기기술처

사 우 에 경 사

결혼

- ▶ 배관기술처 조군휘 차장 장녀 : 12월 2일 GS타워
- ▶ 전기기술처 조철래 부장 장녀 : 12월 3일 웨딩의전당
- ▶ 토목기술처 조윤기 : 12월 16일 롯데호텔월드
- ▶ 원자로계측제어처 조정희 : 12월 16일 전주 갤러리아웨딩타운

부음

- ▶ 사업관리기술처 정복규 차장 장모 : 12월 9일 천안 단대병원

- ▶ 배관기술처 김종태 차장 장인 : 12월 13일 부산 좋은강인병원
- ▶ 토목기술처 권혁천 부장 장인 : 12월 15일 서울아산병원
- ▶ 원자로설계개발처 김동희 차장 장인 : 12월 15일 강남 삼성의료원
- ▶ 토목기술처 양승삼 과장 부친 : 12월 20일 수원 아주대병원
- ▶ 기계기술처 최재환 부장 장모 : 12월 21일 서울 아산병원
- ▶ 배관기술처 김영선 차장 부친 : 12월 22일 안양 성심병원

참 사 랑 봉 사 단

기획관리본부 농촌 결연마을 구매농산물 관내 불우이웃에 기증

기획관리본부 참사랑봉사단은 농촌 결연마을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지난 11월 28일 관내 불우이웃과 성심원 등 회사 결연 7개 단체에 기증하였다. 이번 농산물 기증은 이웃사랑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도 일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더욱 소중한 활동이 되었다. 또한 12월 20일에는 결연마을 행사에 참가하여 신축 마을회관 비치용 전자제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지난 12월 26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회공헌

단 '삼족오'를 후원하고 관내 불우이웃 60세대에 성금을 지원하였다.

원자력사업단 4/4분기 정기 자원봉사활동 실시

원자력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2월 19일과 20일 4/4분기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본사에서는 무법정사 외 2개 시설, 현장에서는 해뜨는집 외 2개 시설을 방문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원자력사업단장 외 46명이 참여하였다.

플랜트사업단 요한의집 김장 지원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2월 4일 사업단 결연시설인 요한의집을 방문하여 2006년도 마지막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업단 직원 14명은 김장준비, 세탁, 청소 등을 도우며 사랑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한편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1월 20일 사업단 결연기관인 노인복지시설 '연꽃마을 용인노인요양원'으로부터 사업단의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 '연꽃마을' 측은 그 동안 참사랑봉사단이 추진해온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건축도면 작성과 지난 11월 14일 참사랑봉사단 주최로 개최한 이웃사랑 다과회 및 봉사공연 등 지난 1년 동안 참사랑봉사단이 기울여온 나눔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오는 2007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원자로설계개발단 결연마을에 성금 지원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월 14일 결연마을인 장수읍 노인회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58세대에 성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29일에는 결연마을 주민 40명이 원자로설계개발단을 방문하여 회사 소개를 듣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전시관 등 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결연단체 방문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2월 16일과 22일 결연단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및 지외선소독기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동 우 회 동 정

바둑동우회 추계 바둑대회 개최

동우회내 취미모임인 바둑동우회는 지

난 11월 24일 선릉역 인근 강남기원에서 추계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A조는 성완석 회원, 박동진 회원이, B조는 정재관 회원, 김행주 회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회 후 시상을 하고 이장기 회장 후임으로 김행주 회원이 새 회장에 선임되었다.

결혼

- ▶ 최일선 차남 : 11월 4일 천주교 논현성당
- ▶ 이내형 장녀 : 11월 4일 스카이스티터컨벤션센터
- ▶ 윤성희 장녀 : 11월 11일 대한투자증권 예식장
- ▶ 이재홍 장남 : 11월 18일 서울 향군회관
- ▶ 안시영 장녀 : 11월 25일 한강성당
- ▶ 윤정노 장남 : 11월 26일 중소기업회관

부음

- ▶ 이상구 부친 : 11월 19일 부산 대동병원
- ▶ 장호상 장인 : 11월 23일 대전장례식장

취임

- ▶ 김옥대 : (주)케너텍기술 전문위원

틀린그림 찾기



두개의 그림중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보내 주세요.

구성 : 권기수

편집자에게

'KOPEC문예 - Best Irreversible Process, 백두대간 종주'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끝낸 이야기에서 진정한 인간승리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 정보화추진처 차장

'경계를 보는 눈 - 인구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주식 가격'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요즘 어디서나 빠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또다른 해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지민 / 경기 과천 부림동

2006년 12월호 당첨자 및 정답



이정권 / 원자로계측제어처 차장
장무상 / 전기기술처 부장
김수광 / 건축기술처 차장
이지애 / 토목기술처

독자에게

사보「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보에 대한 의견이나 신고 싶은 원고가 있거나 새로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Portal mail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Webadm@kopec.co.kr, 이원주 leewj@kopec.co.kr 031-289-3194, 한수정 flonej@kopec.co.kr 031-289-3023) 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보내주시시오. 퀴즈 한마당에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는 매월 말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보가誌齡 300호를 맞았습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맞는 아침에 색다르게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 해도 새해 첫 아침을 맞는 기분은 매번 새롭습니다

아예 지난해의 영광과 아쉬움을 삶의 뒤안길로 남기고,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앞에 새 희망을 섞어 또 다른 삼백여순다섯날을 활潑합니다.

나날이 올라가고, 도전정신으로 충만하고 실천에 번뜩임이 없기를…….

오늘 사보를 받아 들고 반가우셨는지요.

사보에 실린 회사의 여러 소식과 동료나 선배 직원, 그리고 주변의 KOPEC 가족의 글귀와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셨는지요. KOPEC 가족의 사랑과 관심으로 1981년 10월 첫발을 내디딘 사보가 이번 신년호 발행으로 지령 300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5년이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사 불협화음으로 편집기회를 놓쳐 발행하지 못한 사보가 두어번 있었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는 비용절감 일환으로 저급한 지질의 용지를 사용하면서 그 분량을 축소 발행한 적도 있었으며, 함께 사보를 발행하던 동료직원들을 분사시키는 기쁜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속에서도 사보는 시대의 변모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편집 체계와 제호를 바꾸면서 밖으로는 세계 일류 EC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역량을 널리 알려왔고 안으로는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KOPEC 가족의 자긍심을 고양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우리 KOPEC 가족 한분 한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사보를 받아 들고 그동안 사보에 나온 소식 하나가 새롭게 반향되고 글귀 하나가 떠오른다면, 이름 하나가 기억되고 얼굴 하나가 빛나다면, 그것이 사보 300호를 만들어낸 힘이었으며 앞으로의 회사 발전과 함께 1천호, 1만호를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보는 우리 회사의 빛나는 발전상과 미래, 우리 KOPEC 가족의 여러 생각, 모습, 그리고 숨소리를 다양하고도 폭넓게 담아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훗날 사보를 보며 자랑스러운 회사와 고락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떠올리는, 모두가 같이 일구었던 회사를 추억할 때 함께 기억되는 사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사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보실장 백준선

